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출정식이 지난 1일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축구대표들이 태극기를 들고 관중들 주변을 돌며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신태용호, 월드컵 출정식 '예방주사'

보스니아와 평가전 1:3 패배

'수비 불안' 이 주원인

평가전의 목적은 이뤄내

이재성, 전반 30분 1골 터트려

신태용호가 2018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완패하며 값진 예방주사를 맞았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보스니아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수비 불안을 드러내며 에딘 비슈차(바사제히트)에게 헤트트릭을 허용, 1-3으로 완패했다. 이날 경기는 국내에서 갖는 마지막 평가

전으로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을 겸했다.

본선 첫 상대 스웨덴을 감안해 스리백을 들고 나왔지만 수비 뒷공간을 여러 차례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3골을 몰아친 비슈차에게 오른쪽 측면을 계속 내줬다.

출정식에서의 패배가 아쉽지만 지난달 28일 온두라스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불안요소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평가전의 목적을 이뤘다.

피로 탓에 온두라스전에 결장했던 이재성(전북)이 전반 30분 감각적인 골을 터트려 월드컵 본선에서 기대를 모았다. 황희찬(잘츠부르크)은 온두라스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도움으로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기성용(스완지시티)은 100번째 A매치 출전으로 센추리클럽에 가입했다. 한국 선수로는 14번째다.

무릎 부상으로 훈련에 한 차례도 임하지 못한 김진수(전북)는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해 월드컵 본선행이 어렵게 됐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도 부상으로 나마해 아쉬움이 크다.

신 감독은 기성용을 센터백에 둔 변형 스리백을 활용했다. 기성용의 좌우에는 오반석(제주)과 윤영선(성남)이 배치됐다.

3-4-1-2 포메이션의 투톱은 손흥민(토트넘)-황희찬이 섰고 이재성,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정우영(비셀 고베)이 뒤를 받쳤다. 김민우(상주), 이용(전북)은 좌우 윙백에서 공수를 오갔다.

에딘 제코(AS로마), 파니치(유벤투스) 등 정예 멤버를 모두 내보낸 보스니아는 한국 스리백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했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경기 후 그라운

드에 나와 팬들에게 출국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허정무, 최순호, 최진철, 이운재, 서정원, 유상철 등 월드컵 선배들은 하이파이브로 후배들을 격려했다.

선수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기성용은 "오늘 많이 찾아오셨는데 좋은 경기를 못해 죄송하다. 이럴 때는 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월드컵에서는 다시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감독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와 선수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통쾌한 반란을 일으켜 16강 이상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따뜻한 사람과 응원이 필요하다. 응원 열심히 해달라"고 청했다. 팬들은 뜨거운 박수로 답변을 대신했다. /뉴시스

김진수·권경원·이청용, 러시아 월드컵행 불발

신태용호, 23명 최종 엔트리 확정... 첫 발탁 이승우 등은 최종 승선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할 한국 축구 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2일 발표됐다. 23명의 최종 엔트리에서 김진수(전북), 권경원(전진),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이 탈락했다.

김진수의 탈락은 유력했던 상황이다. 러시아 월드컵 주전 자리를 예약했던 그는

무릎 부상으로 온두라스,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에서 모두 제외됐다. 김진수는 훈련 대신 재활에 매진했지만 회복이 느려지면서 결국 월드컵 출전이 무산됐다.

이청용은 두 번의 월드컵에 출전해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소속 팀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 엔트리 탈락 배경으로 해석된다.

그는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부진을 떨쳐내지 못한 채 타파상으로 경기 도중 교체됐다. 권경원은 수비수 경쟁에서 밀리면서 탈락했다. 권경원은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

했다.

한국 대표팀은 보스니아와의 경기에서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드러내며 1-3으로 패했다.

월드컵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던 이승우(베로나), 오반석(제주), 문선민(인천)은 본선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3일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로 떠나며 12일 결전지인 러시아로 임성, 18일 스웨덴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뉴시스

금석배 고교 축구 '킵오프'

12일까지 군산 일원서

전통을 자랑하는 '2018 금석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2일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전북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군산월명종합경기장과 군산국민체육센터 등 군산 일원에서 금석배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제일고와 전주공고, 고창북고 등 도내 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총 37개팀이 참가,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

예선 각 조별 1·2위가 본선에 진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며 결승전은 12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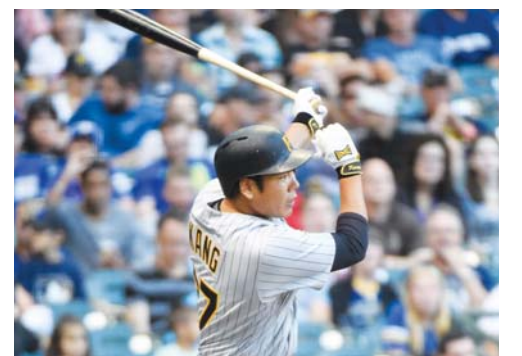
이처럼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학기 중에 열리는 것은 10년 만이다.

지난 2009년 '공부하는 축구'를 모토로 내건 주말리그 도입 후 졸업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 전국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전국대회 입상 실적 등이 선수들의 대학 수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기 중 대회 부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다시 부활했다.

군산에서 전국 대회 규모가 열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김대는 전북축구협회장은 "금석배의 역사는 한국축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며 "승부를 가리는 대회만큼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지만 패배에 고개 숙이지 않고 이를 계기로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석배축구대회는 고(故) 채금석 선생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창설된 대회다. /뉴시스



강정호, 싱글 A 첫 실전 경기서 무안타 '침묵'

빅리그 복귀를 꿈꾸는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소속팀 합류 이후 첫 실전경기에서 무안타로 침묵했다.

강정호는 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의 레폼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상위 싱글A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2볼넷 2삼진 1득점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산하 상위 싱글A 구단인 브레이튼턴 머로더스 소속으로 샬럿 스토크램프(탬파베이 레이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첫 실점을 치렀다.

연습경기가 아닌 실전을 치르는 것은 지난해 11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이후 6개월 만이다. 미국 프로야구 공식 경기를 치르는 것은 2016년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10월 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이후 약 20개월 만의 일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